정말 뜻밖이구만. 향숙이가 여기 와있을줄은…

전 더 놀랐어요. 그때 렬차가 전복되면서 잘못된줄 알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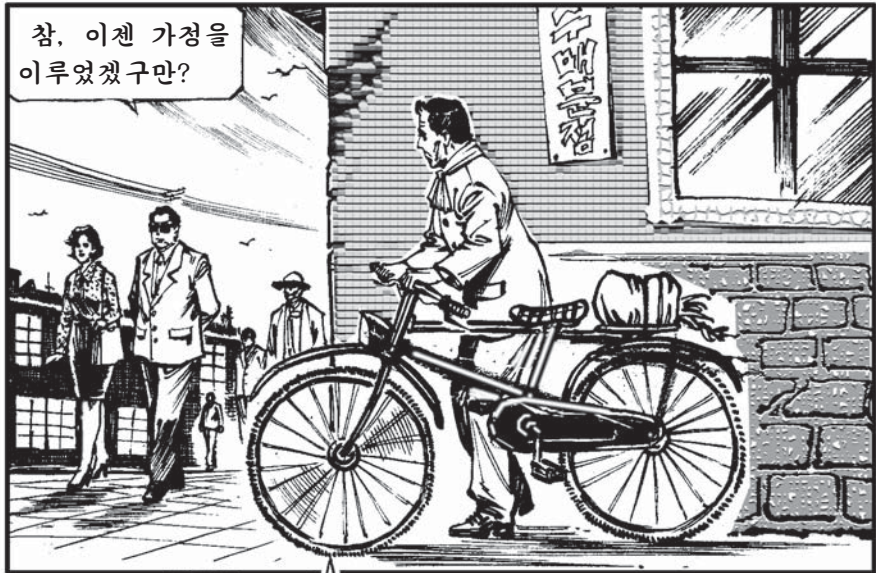
그새 어딜 가계셨어요?

배편으로 부산까지 와보니 38선이 막혔더구만.

그런데 여기서 일보세요?

아니요. 여기 수산사업소에…

물고기를 인수하러 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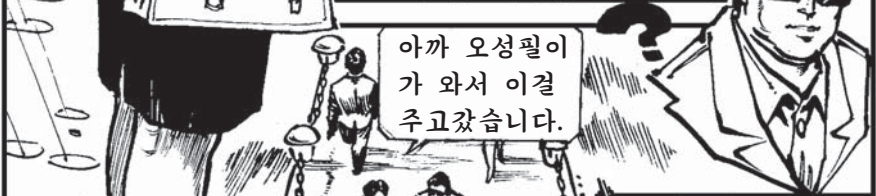
참, 이젠 가정을 이루었겠구만?
전… 일생… 혼자 살 결심을 했어요.
아니? 그건 어째서?
그 허프맨놈때문에…
허프맨? 학교를 운영하던 미국선교사말이요?

예. 허프맨이 본국으로 가기 전에
절 례배당으로 부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짐승
같은 놈이 글쎄…
향숙이, 진정하오.
사람들이 보는데…
미안해요.
전 그때 가
까스로 그놈
을 뿌리치고
집까지 달려
왔어요.

그후에 전 도저히 얼굴을 쳐 들고 살수 없어서 고향을 떠 나 여기로 오게 되였답니다.
향숙이의 가슴에 그런 아픔이 응어리져있는줄은 미처 몰랐구만.

한 편

진평이더러 이걸 련락관
에게 전하라고 이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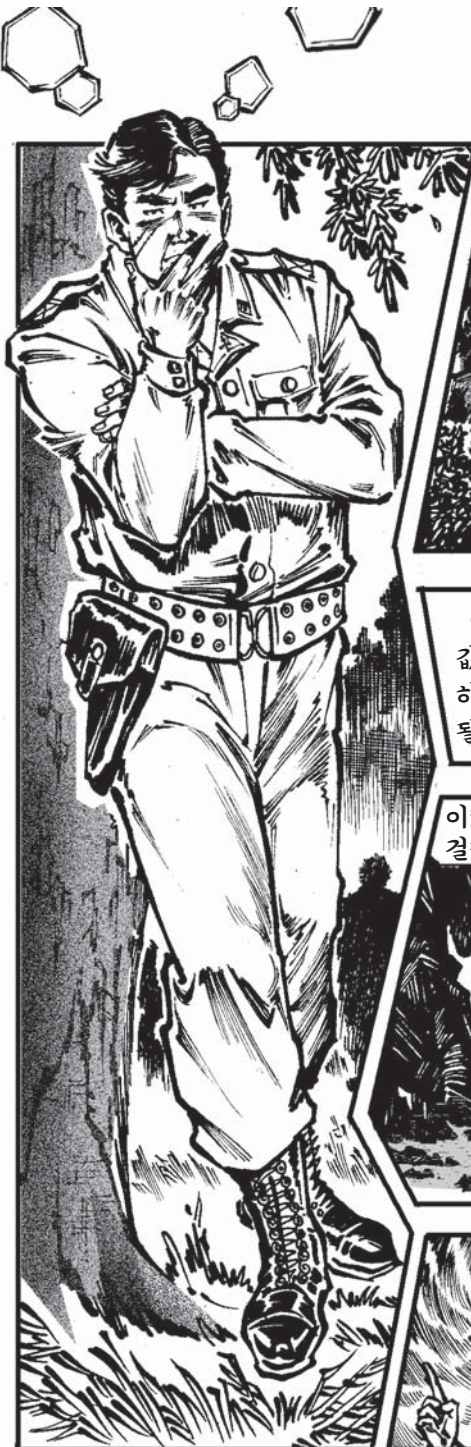
한소나기
쏟아지려나…
이젠 그만
헤여집시다.
인차
또 만날
수 있을
가요?
글쎄…
전쟁이
한창이
니…
기회를 마련
해보겠소.
그럼,
안녕히
가세요.
잘 있소. 용기를 내서 새
생활을 개척하기 바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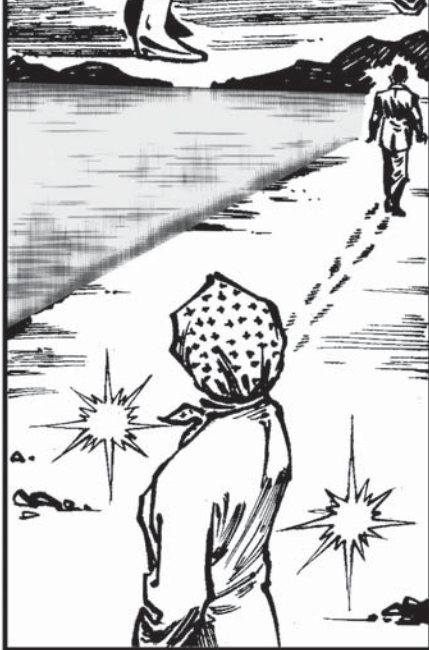
《금련화》가 향숙이
를 만나게 하기 위해
날 불렀단 말인가?
금련화?
아까 오성필이
가 와서 이걸
주고갔습니다.

군안전부
부부장동지, 비적놈들이 상계리를 습격해서 소 한마리를 끌고갔답니다.
인명피해는?
농민 세사람이 중상을 입었는데 한명은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편

아,
서중위!
무사히 갔다
왔구만.
저건
뭡니까?

래일모레가 8. 15길래 빨갱이들한테 명절인사를 했지.
지금은 소대가리를 하나 까버리는게 농군 열놈 죽이는것보다 더 낫거든.
큰 일이 앞에 있는데 저런 잔손질로 적을 자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야 뭐…
그건 그렇고…
조용한 곳으로 갑시다.

이걸 읽어 보십시오.
14일 새벽 5시
례배당 입구에서
상면 바람. <금련화>
이건?
…
이번에야 나타나겠지요.

그리고 중령님, 허프 맨각하는 부대의 형편이 절망적인 조건에서 권중령님이 본부로 돌아와 새 파견지를 말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렇군. 하긴 지금 상태를 봐선 그게 현명한 처사지.
예, 그러니 저 역시 이젠 여기까지 다시 올라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
심복부하들이나 몇명 데리고 《석림사》에 와주십시오.
알겠소. 그렇게 하지.
중령님이 이곳을 뜨게 된다는 건 비밀로 되여야 합니다.

하여튼 그 《금련화》가 무던히도 임자속을 태워주누만.
이제 그 값을 단단히 치르게 될겁니다.
한편
붕어를 잡자고 던진 낚시에도 때로는 잉어가 걸리는 법이야.
이런 얕은 수에 걸려들가요?
만약 일을 망치면 래년 이맘때 네 돌제사상을 차려줄테다.

거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됐다. 가봐!
얘, 어쨌든 넌
나서지 말아.
삼촌, 내가 꼭
가야 할 일 같아
서 그래요.

그러다 거기가 함정이면 어쩌겠니? 내가 가겠다.
그런 위험한 곳에 어떻게 삼촌을…
나야 다 산 늙은이인데 뭐라니.
보아하니 이 싸움이 하루이틀에 끝나지 않을가본데 우리 세상을 되찾구 못 찾구는 너희 젊은이들한테 달렸다.
삼촌!!
흐흑…!!
걱정말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아… 이렇게 날마다 살얼음장우를 디디며 살자니 미칠것만 같아요.
차라리 남으로 나갔을걸…
뭐라구? 그런 나약한 소리는 하지도 말아.
우리 땅과 공장은 이 북쪽땅에 있다. 그걸 누가 우리앞에 고스란히 가져다줄줄 아느냐.
우리 손으로 찾아야 한다. 우리 손으로!
쏴- 쏴-

한편

《석림사》
절간이라…

대장님!
무슨 일인가? 2소대장.
저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자넨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대를 말아 보라는데…
돌아온다구요? 이제 와서 저를 헌신짝 차버리듯 하는겁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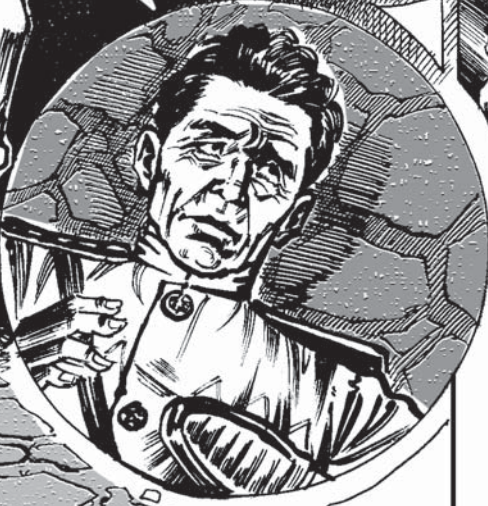
이녀석이 눈치를 챘군. 제길 …
좋네, 따라서게. 까짓 거 다 망한판에 …
감사합니다.
레배당
젊은이가 무슨 일로 이 새벽에 레배당엘 왔는가요?
금련화를 한송이 꺾을가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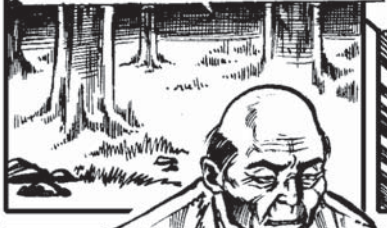
이 고장에야 해당화가 흔하지요.

하지만 금련화를 꼭 꺾어야 할 사정이 있거든 내게 말해보오.

꼼짝말앗!
류목사, 드디여 걸려들었군. 우린 당신의 뒤를 캔지 오래오.
네 정체도 짐작이 간다.
이 사람이 진짜 내무원일가?
당장 안전부로 가자.

가만, 이 령감이 얼마나 태연한가.
틀림없이 《금련화》의 덫이다.
하하하!!
《금련화》의 수도 알만 하구만. 이따위 검토를 다 생각해내다니.
무슨 수작을 하고있어. 련락관나리!
련락관?! 흥, 틀림없구나.
얏!
!
억!

어이쿠..
네가 진짜 내무원이라면 내 손에 죽어봐라.
살려주오.
그만두오. 젊은이!
그는 우리 사람이요.

그럴테지. 소문난《금련화》의 수가 이게 다요?
허허허. 우리 망의 오성필군이요.
아, 권중령의 친구?! 그럼, 이거 더구나 미안한걸.
임잔 물러가게.
뭐, 이만한거야 리해하겠지?
물론이지요.

그럼, 얘기를 계속하기요. 날 찾는 용건이 대체 뭐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접선을 미루다니요?
흔히 낚시질애호가들이 그런 인내력을 소유하고있지요.
난 낚시대따위는 아직 한번도 잡아 본적이 없소.
배낭을 1938년 봄 《금련화》와 낚시질 솜씨를 겨루던 너럭바위밑에 숨겨 두었다는거지요.

속았구나.
당신은 가짜 《금련화》요!
가짜라니?
그…그게 무슨 소리요?
아직도 숨박곡질인가? 제 목숨 귀한것밖에 모르는 좀스러운것들!
난 《금련화》를 직접 만나야만 고튼대위의 유물을 찾을수 있소.
그러니 《금련화》더러 황야에 시드는 신세가 되고싶지 않거든 이제 당장 《석림사》로 오라고 이르시오. 난 가겠소.

뚜벅
뚜벅

똑똑똑똑
누구예요?
나다. 빨리
문 좀 열어라.

큰일 났다. 내가 《금련화》가 아니라는걸 대번에 알아채더라.
그래요?
무슨 고튼대위의 유물이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너더러 당장 《석림사》에 오라더라.
알겠어요. 이젠 어차피 내가 나서야 할것 갈군요.
석림사
당신은 《금련화》가 꼭 오리라고 믿소?
두고보십시오. 꼭 옵니다.

난 아까 웬 《내무원》녀석이 련락관님앞에 나타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가서 도와드리려 했는데 가만 보니 성필형이더란 말입니다.
으하하하
그 친구 망치자루 같이 가느다란 허리가 꺾어지지 않은게 다행이야.
흐음…
어쨌든 그 《금련화》의 얼굴을 한시바삐 보고싶은걸.
그날 오후

이러지 마시오. 난 읍거리에 사는 목사요. 당신네 대장을 만나러 왔소.
목사?! 불교절간 《석림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림하셨을리는 없겠는데…
늙어도 기생이라더니… 이 미끈한 할망구는 누구요?

그건 묻지 말고 어서 대
장에게 우릴 안내하시오.

정말 힘든 길을
수고로이 오셨구만.

향숙이, 그 탈바가지를 벗지 않겠소?
호호호. 경준씨를 속이지 못하겠군요.
아는 사이요?
우린 중학동창들입니다.

세상은 넓고
도 좁다더니.
중령님, 미안하지만 5분쯤 우
리 둘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구려.
그러니 지금껏 날 손바
닥우에 올려놓고 조롱한
게 바로 향숙이였군?
용서하세요.
너무 뜻밖이여서 믿음보
다 의심이 더 가더군요
이젠 진짜 자기 경력
을 얘기해주겠어요?

권중령한테서 들
었겠는데…
그걸 그대로 믿
으란 말이지요?
날 더 의심
할 시간도
없을거요.
우릉
우릉
흠흠
미군비행기요.
폭격기편
대로군.
령감님은 무슨
일을 하시오?
하느님을
받들지요.

거 괜찮은 일자리를 잡으셨구려.

쿵
쿵
뚜루룩

차굴을 폭격하는 모양이군.

그는 나한테도 향숙이에 대해 한마디도 한적이 없소.
그렇군요. 아무래도 당신을 믿어야 할가봐요.
그런데 날 만나서 뭘 알자는 거예요?
38년 봄에 고든씨와 낚시질솜씨를 겨룬적이 있소?
예?

예, 있어요. 해초리
해수욕장부근에서…
거길 가
야겠소.
바로 그 장소에 고
튼대위가 남긴 중요
한 배낭이 있다오.
허프맨중좌의
자필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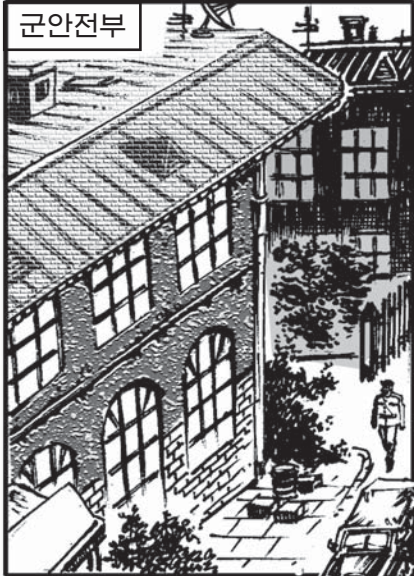
그렇게 됐구만요. 알겠어요. 같이 가자요. 하지만 목적지는 우리 둘만이 알고있어야 해요.
그야 응당 그래야지.
외삼촌! 중령님! 이젠 들어오세요.
인사가 늦었군요. 저의 외삼촌이예요.

그랬댔구만. 새벽엔
안됐습니다.
아니, 젊은이는
옳게 행동했소.
이젠 어쩌자오?

밥이나 한술
먹구 떠납시다.

달각
어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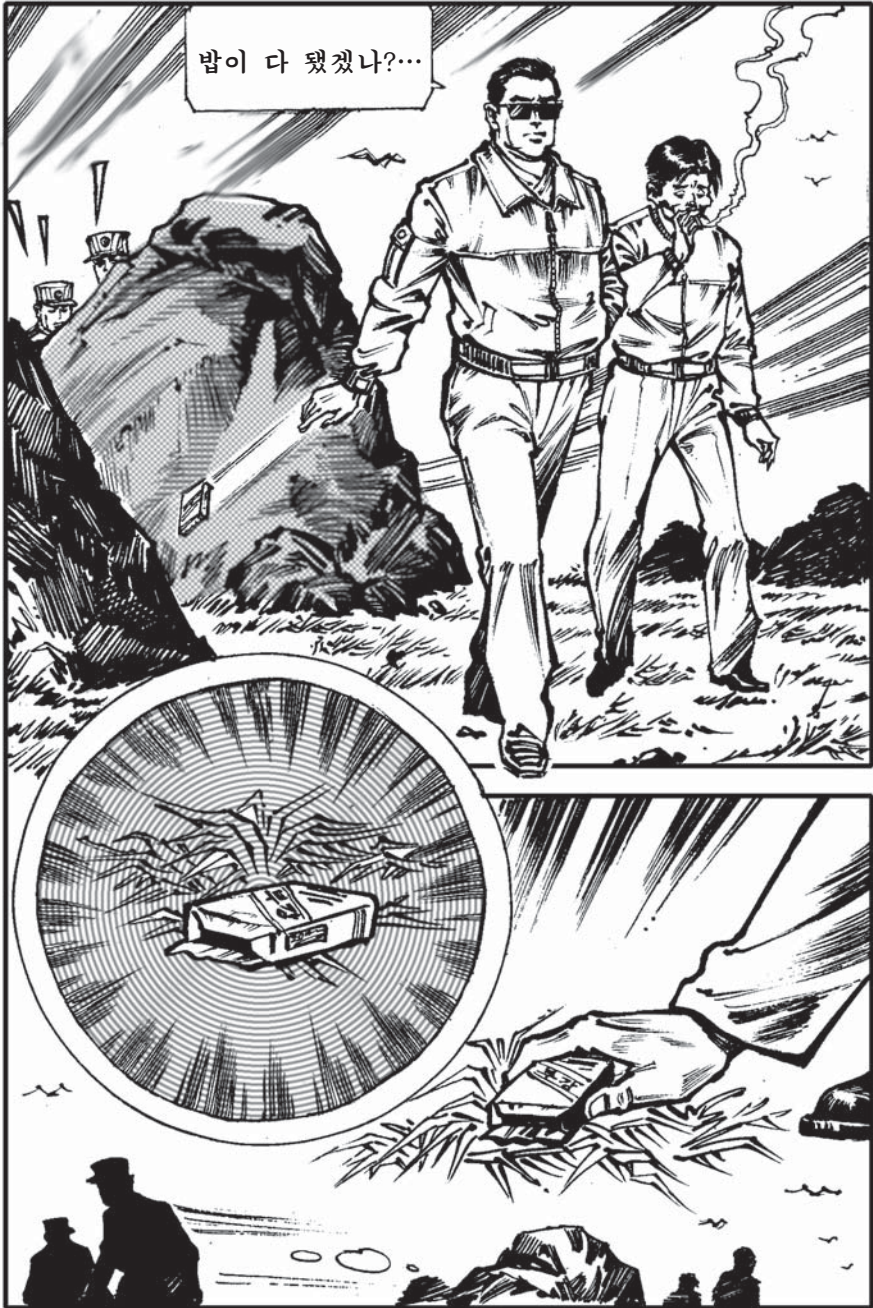
엉?! 건방진 년
같으니…

그저 절 따라오시
면 되겠어요.

군안전부
부부장동지, 이 젠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급해하지 마오. 《피뢰침》이 꼭 련락을 보낼거요.
《조명탄》도 아무 소식 없으니 …

혹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닐가요?
걱정마오. 우리 동
무들을 믿읍시다.

이젠 한숨이
나가누만.
자, 한대씩
피우자구.

어제 향숙이를 만났을 때 한곽 받아넣었는데 이 《부강》 담배도 맛이 괜찮군.
저도 피워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피워보는군. 참 별맛이로군.
자, 가자구.
예.

밥이 다 됐겠나?…

이 지령쪽지를 《물개》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삼촌은 해초리에 갔다 별일 없으면 읍에 돌아와계셔요.
어쨌든 조심해라.
걱정 마세요.

군안전부
이젠 놈들과 결산을 합시다.
서장동무는 군안전부의 기본력량으로 경비대동무들과 함께 권태봉부대의 잔당들을 소멸하시오.
알았습니다.
난 창평으로 넘어가 해초리일대를 봉쇄하겠소.

우리의 예견과는 좀 빗나간 곳인데…
만약의 경우를 예견해서 창평군의 일부 인원으로 기동조를 편성하여 대기시켜놓아야겠소. 동무들! 우리 함께 이번 작전을…
동무들!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올립시다.

산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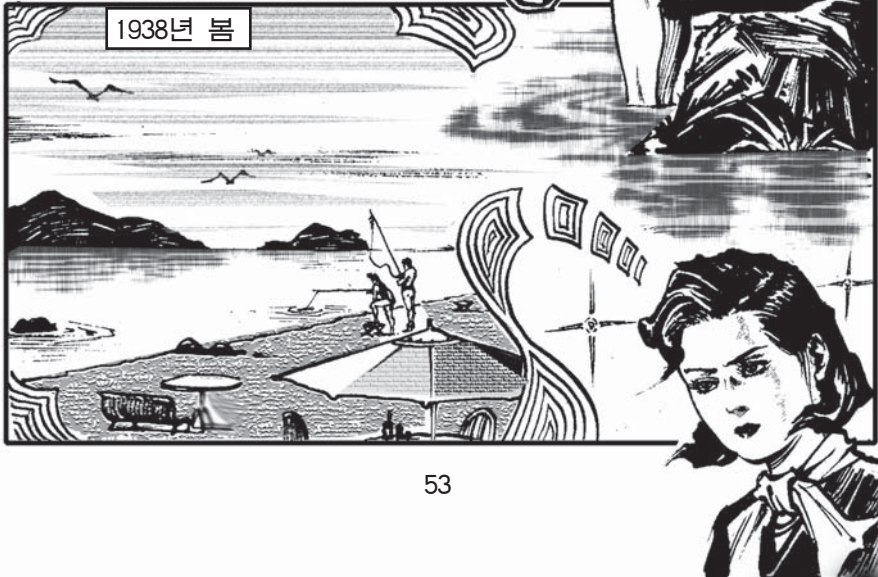
빨리
빨리

이크!

헉억
헉억

대장님, 이 젠 좀 휴식해 야 하지 않겠 습니까?

향숙이, 쉬고 가지.
세번 뛰고는 한 번 쉰다는데…
그러자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길, 개구리도…
중령님, 쉬고갑시다.
후유
후
나한테 저런 녀자 《고문관》이 생길 줄은 몰랐는걸 …
정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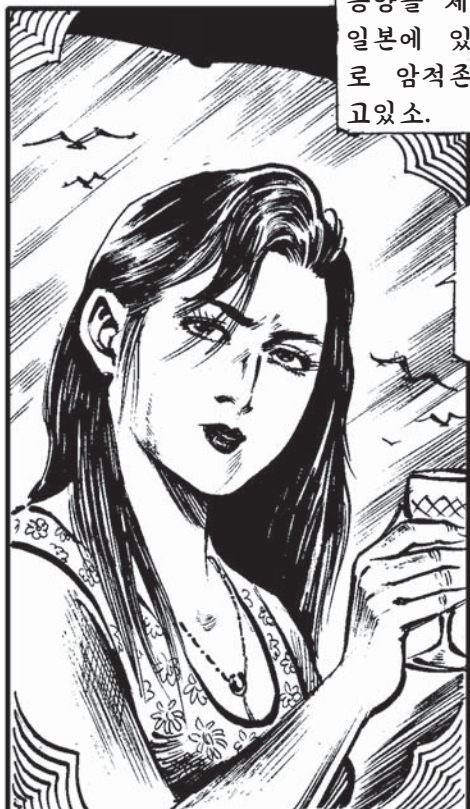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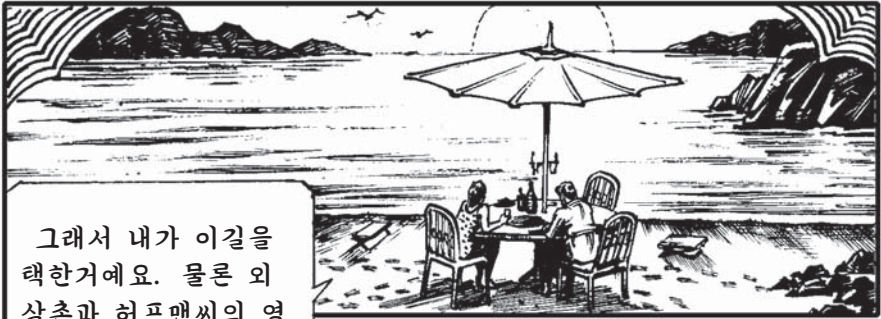
1938년 봄

또 잡았다—
미쓰 심, 난 안 되겠소. 바다물고기들도 이방인의 미끼는 물려하지 않누만.
그만하자요. 아무래도 술은 고튼씨가 내야 할가보군요.
왜 술뿐이겠소? 아름다운 동방미인을 위해서라면 이 금광주가 아낄게 없지.

그런데 심양, 당신은 왜 위험한 비밀전쟁의 세계에 뛰여들 결심을 했소?

명성을 떨쳐보고싶은 충동때문인가?

난 결코 허영심으로 전도를 결정하는 경박한 녀자가 아니예요.

그건 무슨 소리요?

저 만저우땅을 봐요. 《무
적 황군》이 유격대에게 어
떻게 두들겨맞고있어요?
조선의 유격대는
동양을 제패하려는
일본에 있어서 실
로 암적존재로 되
고있소.
당신네 미국도 동방에 손을 뻗
치자면 어차피 그들과 대결해야
할거예요.
그럴테지.

그래서 내가 이길을 택한거예요. 물론 외삼촌과 허프맨씨의 영향도 적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이 땅에 붉은 물이 들지 않기를 바라는 내 소원을 내 손으로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쨍
강

뭘 하오?
어서 올라가자구.
호호, 날 감시라도 하는건가요?
호위하고 있지.
참, 고맙군요.

연미도까지만 가면 되겠는데
상륙할 때 고무배를 잃었으니…
어쨌든 무슨 수가 생기겠지.

내가 배를 한척 끌
어오게 조직했어요.
그렇소? 정말 수완이
있구만. 고맙소.

군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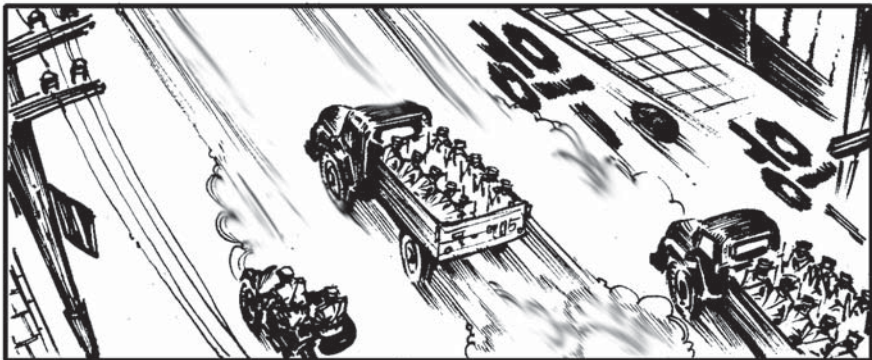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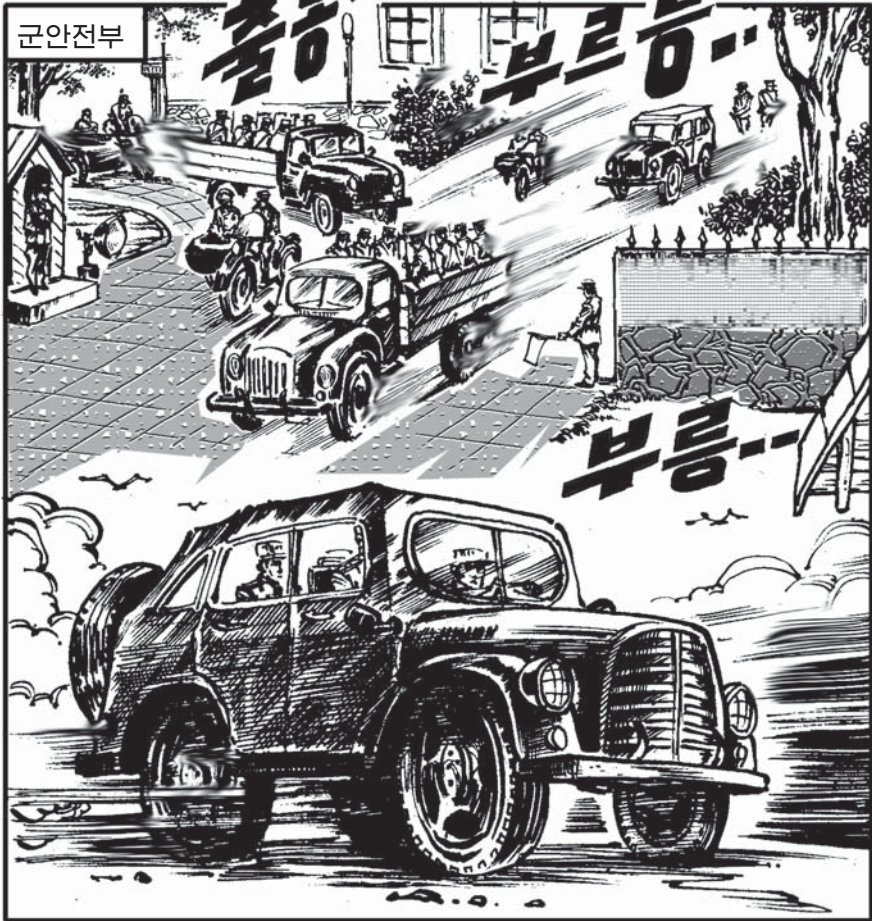
출동—

부르릉…

부릉…

창평

휴식

또 쉰단 말이요? 해 초리까지는 아직 몇 시간 가야 할텐데…
이젠 다 왔어요.
목적지는 저 아래 원정포니까요.
뭐?!

역시 향숙이는 …

미안해요.
리해하세요.

중령님, 숨이나 돌리구
몇사람 내려보내서 주변을
살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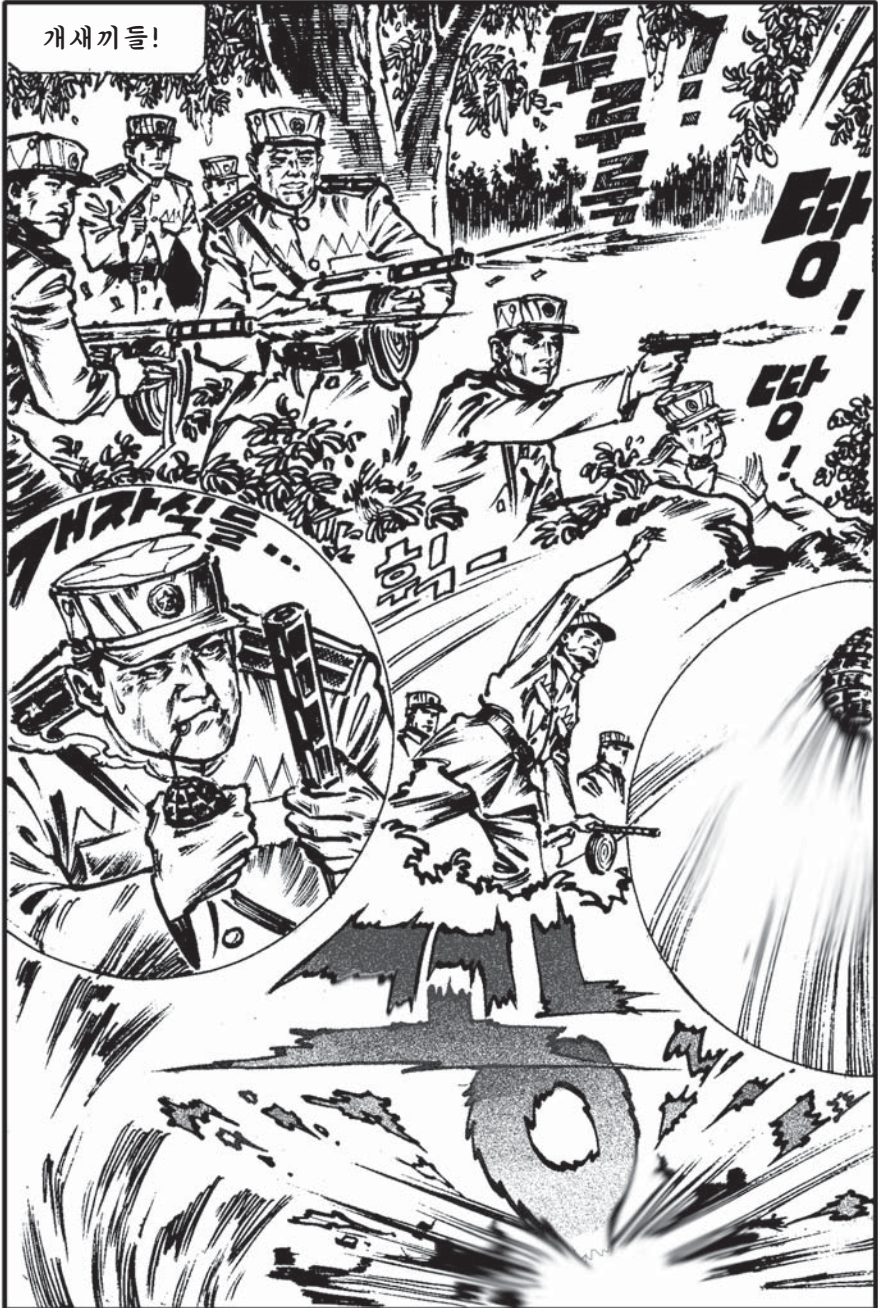
그렇게 하기요.

한편

억!!

미친 수작을 하고있군.
산에서 내려가 자수하자.
내무원들이다!
뛰자.
뚜루룩!
뚜룩!

개새끼들!
뚜루루룩!!
땅! 땅!
개자식들...
휙-
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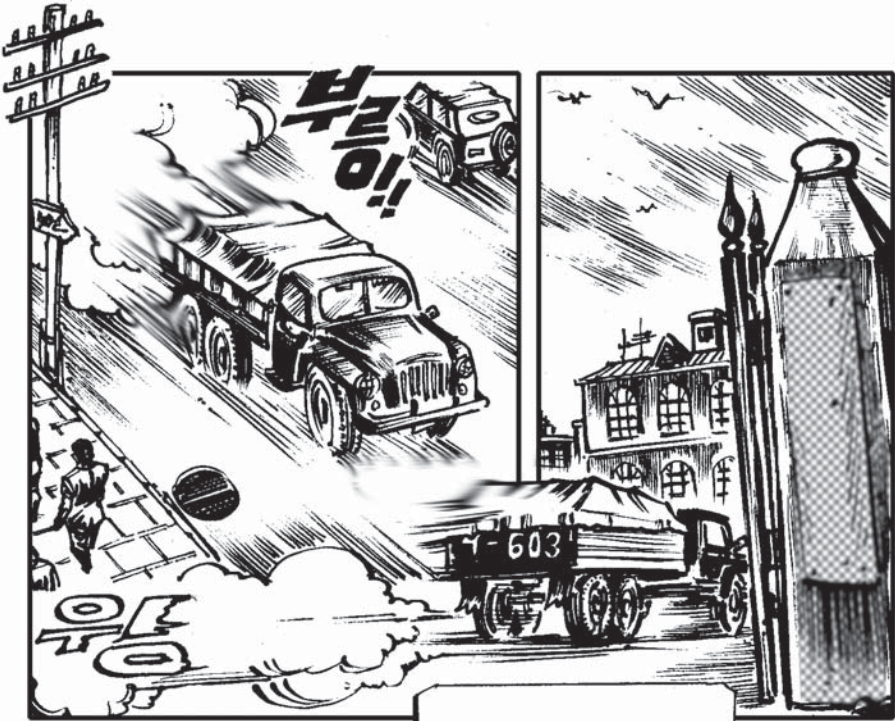
사격중지!

무기를 놓으면 살려준다. 모두 손들고 나오라.

이젠 어쩔수가 없어.

목숨을 건지고 보자구.

별다른 정황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이젠 마음이 놓이오?
예.

같이 내려가자요.

해초리바다가
부부장동지, 이상합니다. 왜 아직 나타나지 않을가요?

군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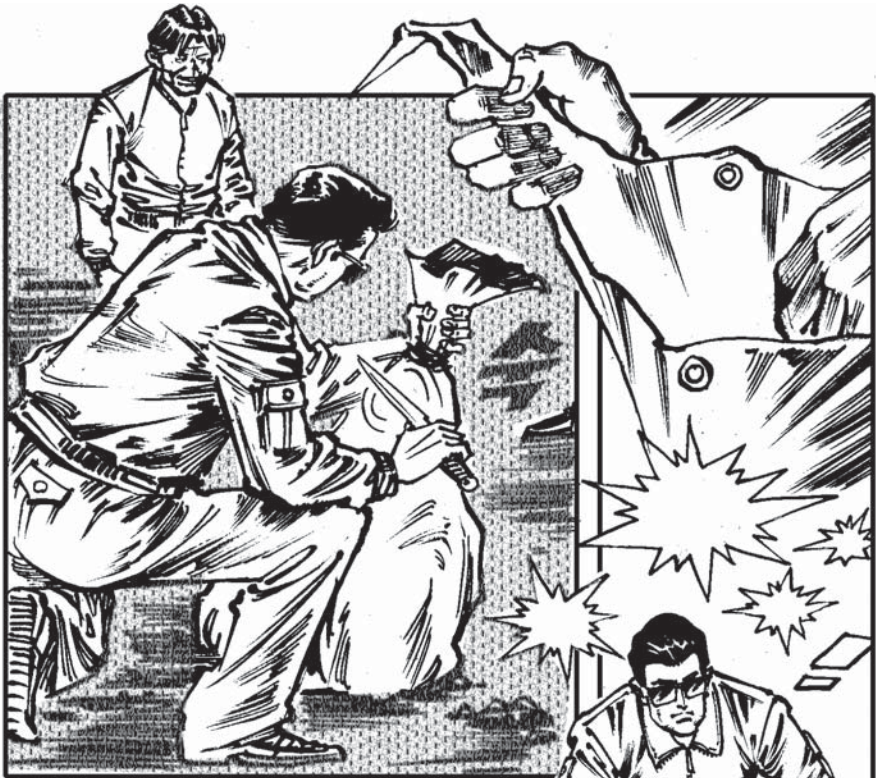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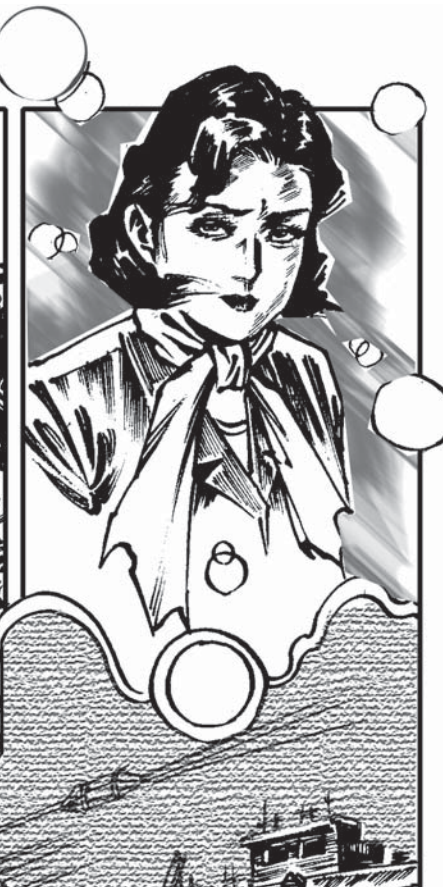
원정포앞을 지나는데 웬 사람이 길을 막더니 이걸 안전부에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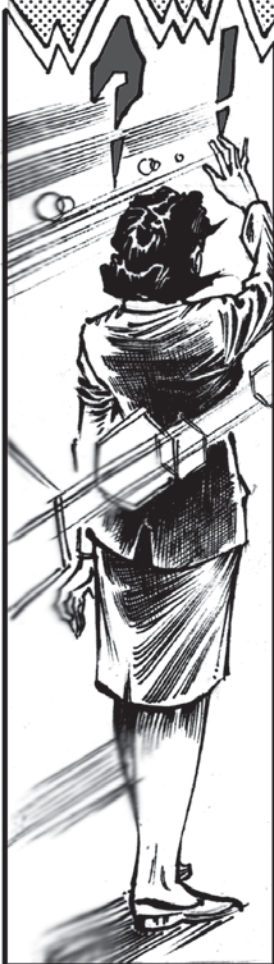
출동준비!
부부장동지에게 그렇게 련락하시오.

원정포

〈지하십자군〉
명단
극비

1950년 10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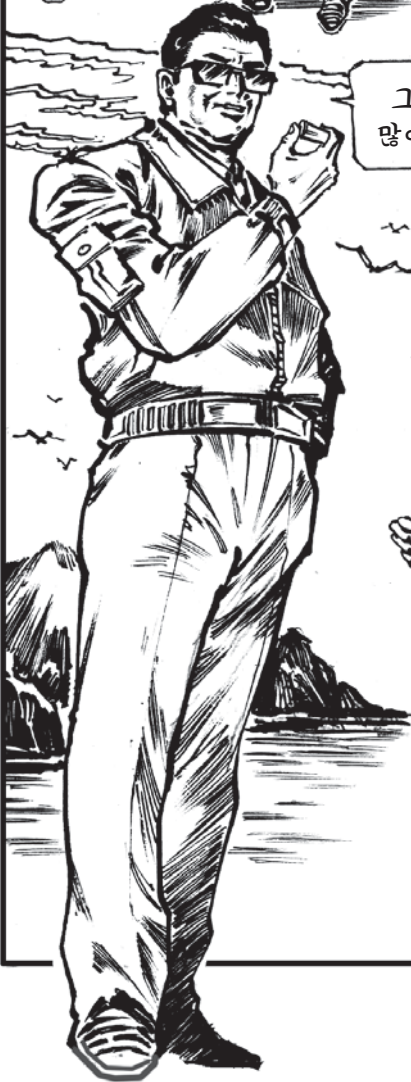
이건 뭐예요?
특수갱도
략도요.

특수갱도
략도?!
비밀리에 화학탄을 가져왔는데 당장은 그걸 사용할것 같지 않아 비밀장소에 보관했소.
그랬군요. 헌데 요즘 전선형편이 씨원치 않다면서요?
자칫하다간 다시 부산까지 밀려날 판이지. 그래서 난 《지하십자군》을 꾸리는 중이요.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여기서 금맥을 뚜지겠어요?
그런 걱정은 마오. 원자탄과 딸라를 쥔 미국이 아무렴 조선이라는 비게덩어리를 쉽게 내놓을것 같소? 천만에!
두고보오. 미국은 절대로 이 땅에서 그냥 물러서지 않을거요.

저기 배가 나타났습니다.
?!
?!
오성필이예요. 내가 배를 몰고오라고 했어요.

해초리바다가
부부장동지,
무전입니다.
우리가 《금련화》에게 속
았소. 원정포에 와있다는
《조명란》의 통보가 왔다오.

정말 교활한
놈이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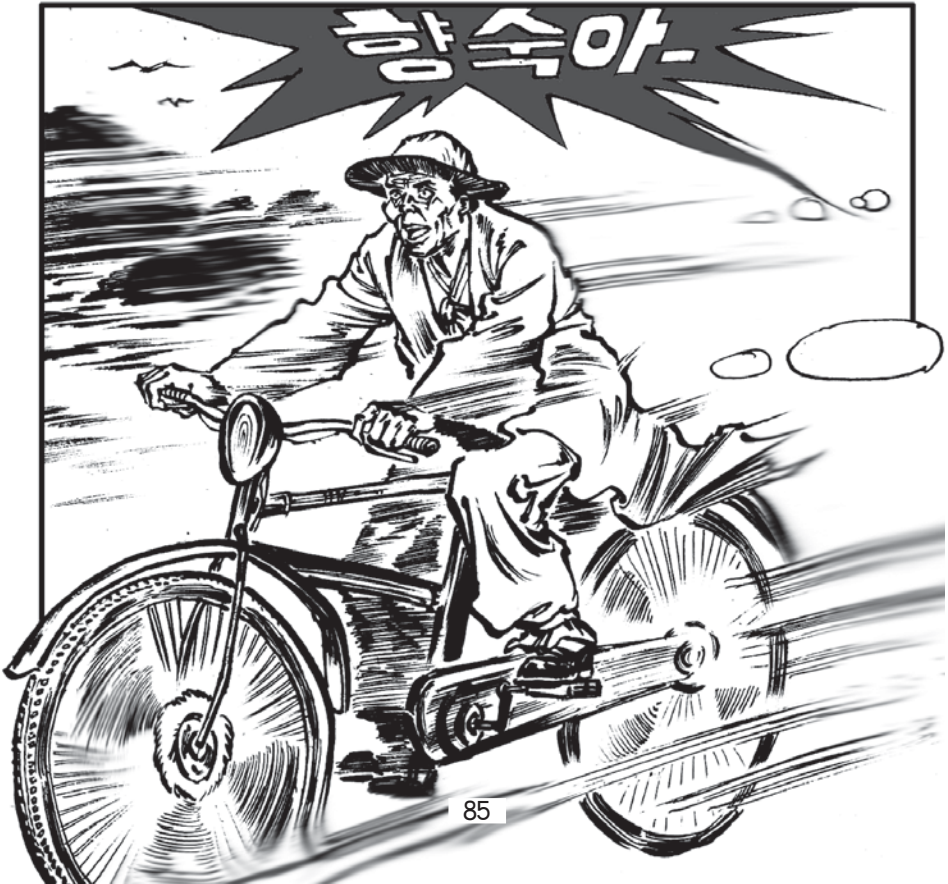
하지만 놈들이 설사 해안에
서 빠진다 해도 연미도에 우
리 동무들이 대기하고있으니
어차피 잡히고말겁니다.

이안에 허프맨씨가 요구하는 우리 망원명단이 들어있어요. 해안방어무력배치도, 흥천기계공장의 위치와 군수생산정형도 함께 넣었어요.
그새 일을 많이 했구만.
자, 이젠 떠나보지.

외삼촌이 나타나지 않는걸 보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그건 무슨 소리요?
호호. 좋다는 소리지요.
그럼, 향숙씨, 잘 싸워주시오.

향숙아-

향숙아

해초리에 내무원
들이 그물을 쳤다.
?!

그러니 당신은?!

《물개》, 련락관을 당장 체포하라!
예!
가만! 향숙이, 이건 무슨 추태요?
흥, 경준씨! 우리가 해초리로 간다는건 당신과 나밖에 모르지 않았던가요?
중령님, 우린 모두 속았어요. 저 사람은 내무원이 분명해요.

그랬댔구나. 어쩐지 께름직하다 했더니…
야, 이놈을 잡아족쳐라.
꼼짝들 말아!
아니 이건?!
배광우

손들엇! 쏜다..

《조명탄》?!

악!
뚜르르륵
뚜르륵
탁!
야앗
앗!

억!
휘익
찌쿵.
아악!
빠각!
빽!
깩!

뻑!
퍽!
으악...
!
으악!
땅!
땅!

얏
뻐억
탁
악!
꺽!
퍽!

콰앙

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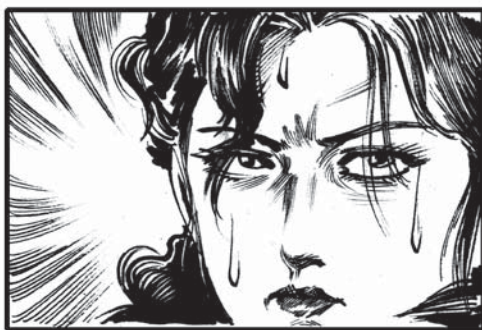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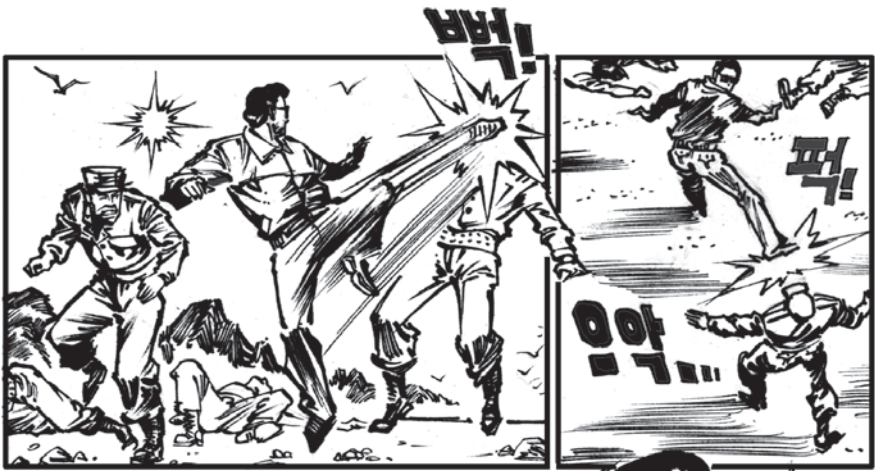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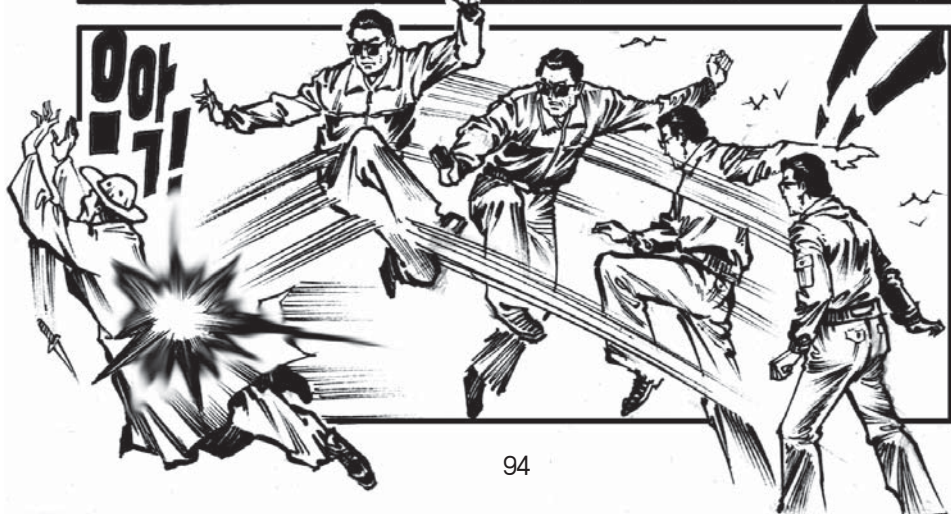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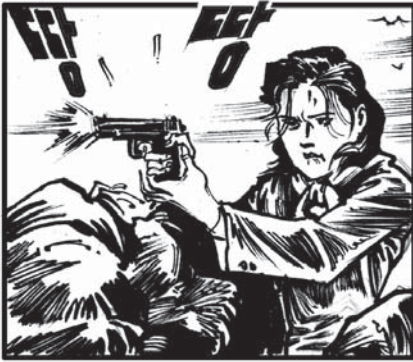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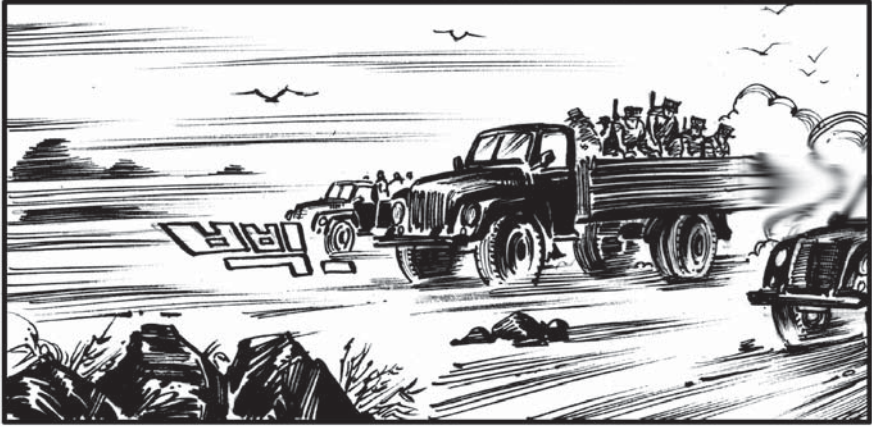
앗!!

으악!

아악!
땅-!
땅-!

땅
땅

뿅
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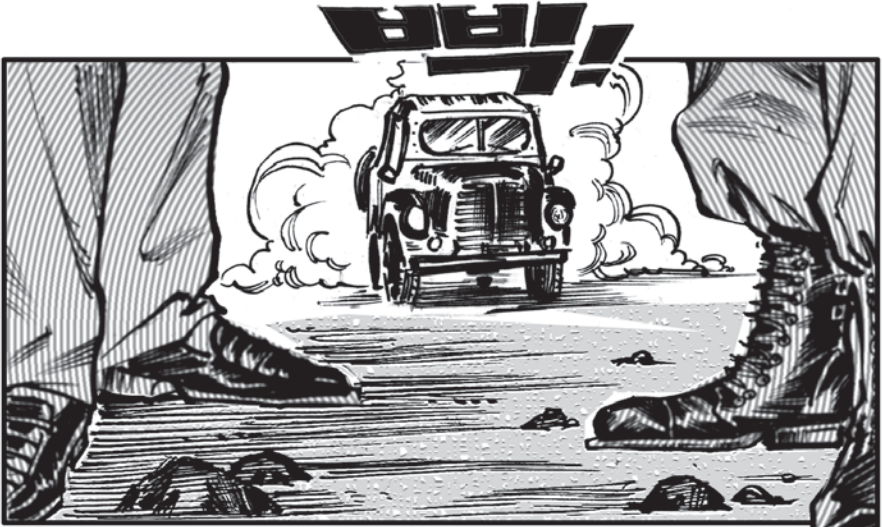
향숙이, 이젠 모든것이 끝장났소. 총을 내리오.

절컥
어리석게 놀지 말아!
흥, 순순히 불잡히진 않을테다. 함께 천당에나 가자.
우직!
야!

《금련화》!
일어섯!
아이구, 내가 …
멍텅구리였구나.
권태봉, 넉두리
는 그만하고 너
도 어서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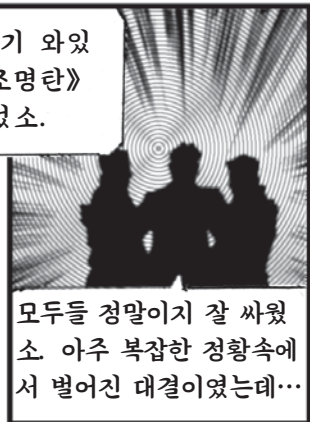
《조명탄》이 바로
창우동무였군요.
경준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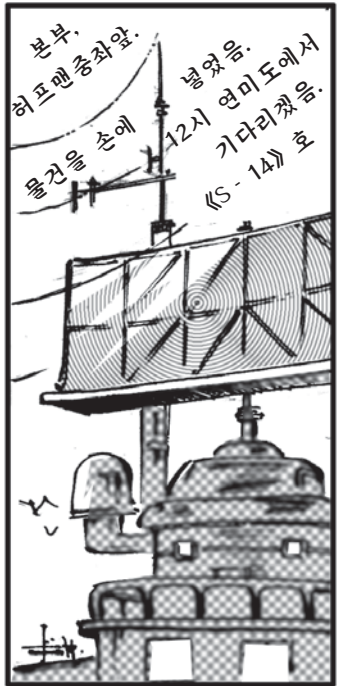
창우동무, 정말 고마왔습니다. 동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의 공작이 순간에 실패로 끝날번 했습니다.

뭘요. 경준동지가 련락관노릇을 멋지게 했습니다.

참, 리신우동지는 건강하십니까?
부부장동지는… 전사했습니다. 폭격속에서 유치원애들을 구원하다가 그만 …
그렇게 됐군요.
저를 이 성스러운 싸움길로 이끌어준 고마운 은인이였는데… 게다가 5월말에 저를 만나러 오던 련락원동무도 놈들과 맞다들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새 련락선을 미처 조직할새가 없었군요.

부릉!
경준동무!
부부장동지!
경준동무!

이 동무가 바로
《조명탄》 입니다.

정말 수고
했소.

고튼이 꾸려놓은 간첩망들의 명단이 이속에 들어있습니다.

군안전부
도쯔…
쯔쯔…
본부,
허프맨중좌앞.
물건을 손에
넣었음.
12시 연미도에서
기다리겠음.
《S - 14》호

중좌님, 목적지까지 다 왔습니다.
여기서 배를 멈추고 연미도까지 단정을 들여보내겠습니다.
아니, 연미도에 바싹 갖다대오.

해안과 너무 가
까와서 위험합
니다.

걱정마오. 이 일대
에는 인민군해안포
가 없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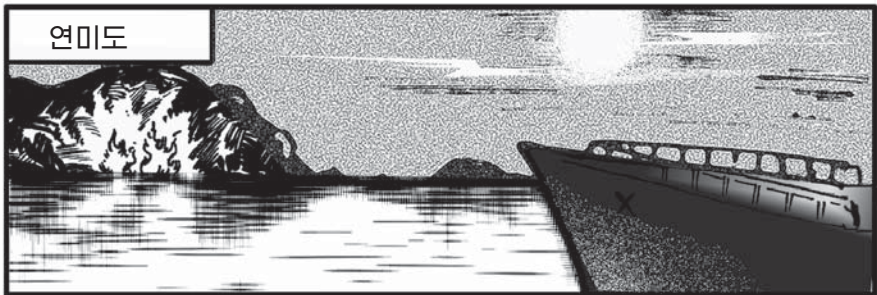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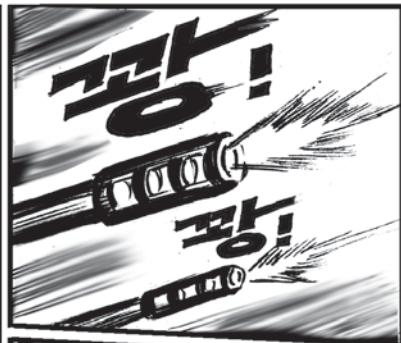
모닥불!
기관정지. 신
호를 보내라.

신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꽝!
꽝!

쾅!

빨리 배를 돌리라!
기관실에 화재!
좌측선미가 파손됐습니다.

꽝!

이동포병중대동
무들이 8. 15명절
축포를 멋있게 쏘
는구만.
저게 바로 얼
빠진자들의 말
로요.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이겼지,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소.
물론 이 전쟁의 포성은 머지않아 멎게 될거요. 하지만 원쑤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준엄한 계급투쟁은 계속될것이요.
최후의 승리를 위해 혁명의 총을 더 억세게 틀어쥐겠습니다.

저 방파제를 보라구. 집채같은 파도가 아무리 밀려들어도 끄떡없이 어머니대지를 굳건히 지키고있지 않소?
우리모두 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국을 지키는 길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방파제가 되자구.

끝